

현대차, '코나 N' 디자인 티저 공개

현대자동차는 최초의 고성능 SUV인 '코나 N'의 디자인 티저를 10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더 뉴 코나'의 고성능 모델로 현대차의 디자인 정체성 위에 N 브랜드 특유의 공격적이며 대담한 특징을 잘 녹여 내 강력한 존재감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금호석유화학 '조카의 난'...박철완 상무 주주제안, 주총 안건 상징

경영권 분쟁, 결국 '표 대결'...누가 웃을까

박상무, 공시로 특수관계 해소 밝혀 '고배당 주주제안' 안건 상징 확정
박 회장은 유망사업 히든카드 반격

	금호석유화학(박찬구 회장)	주주제안(박철완 상무)
배당	보통주 4200원, 우선주 4250원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
이사회	대표회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중 이사회 결의로 선임
사내이사	백중훈 금호석유화학 전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고무해외영업 상무
사외이사	이정미, 최도성, 박순애, 황이석	이병남, MIN John K, 조용범, 최정현



박찬구 회장 박철완 상무

10일 박 상무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라고 일부 인용 결정함으로써 박철완 상무의 주주제안이 모두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에서 표 대결을 진행하게 됐다.

●박철완, 특수관계 해소 공시 선행포고

이른바 금호석화 '조카의 난'은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조카이자 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1월 27일 "기존 대표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지분공동보유와 특수관계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발표하며 시작됐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의 지분율은 6.7%, 박찬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는 7.2%, 박주형 상무는 0.8%다.

박철완 상무는 박찬구 회장과 함께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날 공시를 통해 특수관계 해소를 밝혔다. 또한

이사 교체와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회사에 발송하며 경영권 분쟁을 공식화했다.

박철완 상무는 본인을 사내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했고, 사외이사로 이병남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오피스 대표, 민 존 케이(Min John K) 외국 변호사, 조용범 페이스북 동남아시아 총괄 대표, 최정현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박찬구, 배터리소재 진출 카드로 반격

박찬구 회장은 9일 이사회를 통해 배당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2차전지(배터리소재)와 바이오 등 유망사업에 진출해 매출을 5년 내 두 배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반격카드를 공개했다.

박찬구 회장 측은 사내이사로 백중훈 금호석화 영업본부장(전무)을, 사외이사 후보로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 고문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도성 가천대학

교 석좌교수, 황이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을 후보로 추천했다.

배당과 관련해선 보통주 주당 4200원, 우선주 주당 4250원 등 총 1158억 원 배당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해 대폭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총 배당금은 전년 대비 약 180% 늘렸다.

26일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은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주주 배당 확대 안건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찬구 회장은 2차전지(배터리 소재)와 바이오 등 유망 사업 진출과 5년 내 매출 두 배 증대라는 히든카드도 꺼내 보였다. 2025년 매출 목표는 9조 원으로 지난해 매출 약 4조8000억 원의 두 배 수준이다. 박 회장은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배터리와 바이오 등 신사업에 진출하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신사업에서 2025년까지 1조7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주주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격적인 제안이다.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여자는 군대 안 가니 월급 적게..."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불매 품목

논란 발언 당사자 징계...피해자 "정식 사과문 요구"

동아제약의 채용 면접 과정에서 불거진 성차별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조직적인 불매운동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10일 현재 여성이 많이 방문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아제약의 간판상품인 자양강장제 박카스를 비롯해 피임약, 그리고 이번 논란의 시초가 된 생리대 등 주요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리스트를 공유하며 조직적인 불매운동에 나서자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 달라스튜디오가 5일 올린 영상 '내고양'의 동아제약편에 달린 댓글에서 불거졌다. 당시 최호진(55) 동아제약 대표와 방송인 장영란이 출연해 동아제약의 생리대 제품을 소개했는데, 영상 댓글에서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면접을 봤다는 여성이 면접관이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느냐" 등을 질문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글이 퍼지면서 성차별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아제약은 6일 해당 글에 최호진 사장 명의로 사과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해당 면접자가 8일 본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 면접 전후 상황과 당시 심정을 밝히며 동아제약에 "제대로 된 사과문을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면접관이 거론한 군가산점, 여성 입대 등은 몇 해 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민감한 주제여서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동아제약 측은 성차별 논란에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해명 자료와 함께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내놓고 있으나, 아직 성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6일 사장 명의의 사과 댓글에 이어 9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문제 발언을 한 인사책임자에게 직책 해임 및 징치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동아제약의 한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접관에 대한 내부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ga.com

경희대, 후마니타스 인공지능 인재 양성 나선다

(인간중심)

대학원·학부서 인공지능 관련 학과 개설
'인공지능 브레인 허브' 설치, 100억 투자

경희대(총장 한균태)가 후마니타스(인간중심)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나선다.

먼저 대학원과 학부에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2017년 학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신설로 첫 삽을 떴다. 2018년에는 이 학과를 컴퓨터공학과와 통합해 소프트웨어융합대학으로 승격시켰다. 2020년에는 일반대학원에 인공지능학과를 개설했다.

2022년 학부에 세 개의 학과를 신설한다. 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 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가 그것이다.

이중 빅데이터응용학과와 스마트팜학과는 인공지능과 관련 분야의 지식을 융합한 전공이다. 빅데이터응용학과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데이터 마이닝과 최적화 이론 등을 학습한다. 스마트팜학과는

센서제어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모델링, 생육환경 빅데이터 분석 등의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교육한다.

인공지능학과는 수학적 사고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개발, 머신러닝, 빅데이터처리, 지능로봇공학, 블록체인 등 인공지능 관련 전 분야를 다루는 학과다. 경희대의 후마니타스 정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지식 교육과 인간중심의 인재 양성이 목표다. 인공지능을 지식은 모든 학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돕는다.

대학과 산업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인 '인공지능 브레인 허브'를 설치해 교육과 연구를 돕는다. 산하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클리닉 센터를 둔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학제별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센터다. 인공지능 클리닉 센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위한 사전 테스트도 마쳤다. 배성호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2020년 2학기 '머신러닝' 강의에서 캐글을 활용해 딥러닝 모델링 최적화 대회를 개최했다. 학



경희대가 후마니타스(인간중심)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학원과 학부에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인공지능 브레인 허브를 설치해 교육과 연구를 돕는다. 사진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허의남 교수의 지능형 클라우드 및 보안 연구실 모습. 사진제공 | 경희대

생들에게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줬고 학생들은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물을 기업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균태 경희대 총장은 "100억 원의 예산 투입과 함께 향후 5년 간 14명의 교원을 추가로 임용해 경희대가 인공지능 교육 확산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2021 대한민국 올해의 차 (Car of the Year 2021)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차 'G80'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10일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21 대한민국 올해의 차'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1 '올해의 차'는 제네시스가 선보인 대형 세단 'G80'이 차지했다. 올해의 차를 포함한 15개 부문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S-OIL, 전 사업장 디지털 전환 추진



에스-오일(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사진)은 최근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디지털 공장, 디지털 마케팅, 스마트 워크 근무환경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스-오일은 공장에 적용할

11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생산, 안전, 정비, 품질관리 등 공장 전 분야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종합 디지털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공장 상황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증거금 63조 넘어...IPO 역대 신기록

올해 진행한 기업공개(IPO) 중 첫 대어급으로 평가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증거금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며 청약 흥행 대박을 터트렸다.

10일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의 최종집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증거금으로 63조6198억 원을 모집했다. 경쟁률은 335.36대1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IPO 열풍을 이끌었던 SK바이오팜(30조9899억 원), 빅히트엔터테인먼트(58조4237억 원), 카카오게임즈

(59조5543억 원)를 뛰어넘는 IPO 사상 최대 증거금 모집이다.

청약 첫날인 9일 14조1474억원이 모였고, 다음날 10일 오전 11시쯤에 SK바이오팜의 기록을 넘어 신기록 달성 의 기대감을 높였다. 결국 이날 49조4724원의 증거금이 몰리며 청약 신기록을 세웠다. 증권사 별로 보면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23조46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증거금이 모였고 이어 한국투자증권 16조2110억 원, 미래에셋대우

13조6196억 원, SK증권 3조3174억 원, 삼성증권 4조 2042억 원, 하나금융투자 2조7013억 원으로 집계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청약이 이렇게 인기를 얻은 데는 올해부터 바뀐 청약 공모주 배정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는 기존과 달리 소셜 투자자들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기업공개로 공개모집하는 주식 수는 2295만 주다. 1530만 주를 신주 모집하고 765만 주를 구주 매출하는 방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증거금 환율은 12일에 진행되고, 18일 코스피에 상장한다.

김재범 기자